

체육 활성화 · 학생 건강증진 도모

전북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20일까지... 현장경기 · 온라인 챌린지 병행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20 전라북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함께 극복하자! 코로나19'를 주제로 7일부터 20일까지 11개 종목에서 현장경기 및 온라인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온라인 챌린지를 병행해 코로

나19로 인한 스포츠 활동 제한의 기회를 온라인으로 옮겨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온라인 챌린지 종목의 경우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이 가능하고, 참여 가능한 종목으로 구성했다.

참가대상은 도내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생으로 현재 1,900여

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육상 · 피구 · 축구 등 현장진행 경기는 출전 학교별 대항전으로 실시되며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한 종목별 비접촉 분산 개최 및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농구 · 킥볼 · 탁구 · 배드민턴 · 줄넘기 · 탁걸이 · 매달리기 · 홈트레이닝 등의 종목은 온라인 챌린지로 운영된다.

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학교에서 영상을 제출하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찬 인성건강과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건강체력 증진 및 활기찬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스포츠클럽 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 너도나도 공모전 3개 분야 총 36편 선정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0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

지난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사진 157편, 포스터 80편, 동시 678편 등 총 915편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8편 등 총 3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분야별 대상은 사진은 계북초 정금주 교장의 '5월이 지나면 학교는 지금부터 봄이야'가, 포스터는 무주중 김연하 학생의 '하늘에서 마스크가 내려온다면 이, 동시는 군산문화초 김도윤 학생의 '눈으로 말해요!'가 각각 차지했다.

수상자들에게는 교육감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진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진분야는 대상 7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4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포스터는 대상 50만원, 최우수상 4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동시는 대상 문화상품권 35만원, 최우수상 문화상품권 25만원, 우수상 문화상품권 20만원, 장려상 문화상품권 10만원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들은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주제에 맞춰 학교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모습과 학생들의 참신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0 너도나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 사진은 계북초 정금주 교장의 '5월이 지나면 학교는 지금부터 봄이야'.

전주대, 리빙랩 데이 성료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지난 4일부터 3일 동안 전주대 드림랩 소셜가든(테스트베드)에서 2020년 리빙랩 데이(Living Lab Da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리빙랩 데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리빙랩 프로젝트, 소셜벤처 프로젝트, 해외 협력 리빙랩, 코워킹 창업동아리 등 리빙랩(Living Lab) 기반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자리다.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우철 전북노인복지센터장, 조선희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최현규 시민행동21 사무처장 등 지역기관 관

계자와 전주대 한동승 지역혁신센터장, 김병오 문화융합콘텐츠학과장 등 교내의 인사가 멘토 및 패널로 참여하며 함께 의견을 모았다.

총 5개 주제에서 17개팀이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 변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제 프로젝트까지 진행했다. /정은성 기자

도내 16개 미래창작공방 개방

도내 14개 시군 16개 미래창작공방이 도민들에게 개방된다.

전북교육청은 9일부터 14일까지 도내 미래창작공방을 초·중·고 학생과 교원은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작공방은 아이디어를 실물로

창작해 볼 수 있는 창의융합교육 공간으로, 체험중심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2018년부터 추진해왔다. 각 공방에는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교육용 로봇, 드론 등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기자재가 구비돼 있다.

이번 개방 기간에 각 공방은 보유 기자재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으며, 14일에는 가족 캠프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형 메이커 교육 공간인 미래창작공방은 학생과 교원은 물론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과 제주권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대학인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연)가 지난 6일 제주대에서 권역별 협력과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제주대, 권역별 협력 '맞손'

전북과 제주권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주관대학인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연)가 지난 6일 제주대에서 권역별 협력과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 운영상 단장(기획처장)과 제주대 이등철 단장(기획처장) 등 양 대학 사업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대학 사업단은 협약을 통해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과의 협력 ▲연기금 운용 공공기관 및 금융권과의 협력 ▲문화·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상호 협력기로 했다.

또 ▲해외교류 공공기관과의 협력 ▲공공기관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상호 권역 내 현장실습 및 기업 탐방에 권역 간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양 대학 사업단은 지난 8월 전북 장수군 한국농업연수원과 전북대 에서 권역 간 협력 첫 사업으로 기금 운용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직무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력을 위해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책사업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기록관리 기관평가 '최우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전국 기관 중 기록관리를 가장 잘하는 대학으로 손꼽혔다.

전북대는 최근 행정안전부 국가 기록원이 실시한 2020년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94.8점으로 최우수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북대는 국·공립대가 이 평가에 포함된 2016년 이후 3번이나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안게 됐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평균 점수는 65.7점이었다. 국·공립대 42개를 비롯해 6개 유형별로 전국 46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을 비롯해 업무추진, 서비스 및 업무개선 등 3개 분야를 16~20개 세부 지표로 나눠 분야별 정량 및 정성 평가 방식이 적용됐다. 42개 국·공립대 중 '가' 등급은 전북대를 비롯한 8개 대학이었다. 평가 우수 기관에는 포상이 주어지고, 미흡 기관에는 기관별 컨설팅 등 기록관리 현장 지원이 강화된다. 이 평가를 통해 전북대는 기록 관리의 기본과 체계적 관리 시스템, 평가에서 폐기 절차 준수에 이르기까지 매우 우수한 기록관리를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최우수평가는 대학 구성원들이 저마다 투명한 기록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기록물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